

한국의 구법승

14. 고려시대 대표 구법승

신라 말 불교의 밀교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고, 선근공덕과 도교의 음양오행, 풍수지리를 묶은 도합설까지 유행하며 고려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고려시대 중국은 송나라와 원나라였다. 이때의 문화를 수용한 주체는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구법승들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선종과 교종의 갈등이 증폭되고, 승려들이 국가가 관장하는 관료조직으로 흡수되기도 했다. 이때마다 구법승들은 한국불교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교장 결집, 천태종을 펼치다

대각 의천 스님

먼저 고려불교를 새롭게 한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대각국사의 의천 스님을 꼽을 수 있다. 문종의 넷째 왕자로 1055년에 태어난 의천 스님은 11세에 출가해 개성 영통사의 경덕국사 문하에서 화엄을 연마했다. 조예가 깊었던 의천 스님은 23세부터 화엄을 강의하기 시작해 일생동안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천 스님은 특히 교장 수집을 발원했다. 송나라 유학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의천 스님은 송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왕에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하지만 스님은 유학에 대한 결심을 굽히지 않고 왕과 태후에게 편지를 남기고 제자 수개(壽介)를 데리고 물레 중국으로 건너간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 유학, 풍랑을 거스르는 배에서 몇 개월씩이나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송나라로 의천이 유학을 간 이유는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 '백가(百家)의 장소(章疏)', 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31세가 되던 1085년 송나라에 도착한 스님은 14개월 동안 머물며 송나라 지도자급 승려들을 만나고, 불서 발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다.

송나라에 들어가서조차 송나라 관료인 양결(楊傑)의 인내를 받으며 유행하고, 해인원에 머물 때는 불교전적 7500여 권을 기증할 정도로 재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의천 스님이기에 행각은 여느 구법자들과는 많이 달랐다. 스님은 중국의 화엄종 조사 진수정 원 대사와 교류했는데, 이어 50명이 넘는 당대 각 종파 고승들을 만나 불법을 묻고 3000여 권의 전적을 수집해 이듬해 귀국했다.

의천 스님의 이런 실천은 <속장경>과 엄청난 수의 교장(敎藏)을 출간하는 결실로 이어진다. 고려에서 의천 스님은 <대각국사문집> <대각국사외집> <십집원종문류> <석원사략> <간정성유식론단과>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을 편찬했으며, 불교역사 이래 최초로 <속장경>을 간행했다.

스님은 귀국 후 응양사 주지가 돼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다. 스님은 35세에 천태종을 개창하고 모후인 인예태후의 원찰로 국정사를 기공했다. 스님은 화엄종을 기반으로 천태종을 개창해 기존 선종을 포용하려 했다. 42세에 속종 즉위 후 흥양사에 올라 그동안 중단된 국정사 공사를 재개해 기공 8년만에 낙성을 하여 주지로 부임, 천태종을 창립한다. 그리고 4년 뒤 속종 6년인 1101년에 47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창립한 까닭은 천태의 근본 사상인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일심삼관(一心三觀)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

교의로서 국가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禪)과 교(敎)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화두 참구로 조계종 기반 다져

태고 보우 스님

태고 보우 스님은 조계종 중흥조이자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려말 대표적인 고승이다. 보우 스님은 13세 때 화암사 광지선사에게로 출가했다.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의 종풍에 따라 스님은 선가의 가풍에 자연스레 젖어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를 참구했으며, 교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26세 때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교학의 한계를 깨닫고 궁극적인 깨침에 이르러자 모든 반연을 끊고 화두에만 전념했다. 충숙왕 17년인 1330년 용문산 상원암(上院庵)에서 관음기도를 하고, 충숙왕 복위 2년인 1333년 성서(城西) 감로암(甘露庵)에서 정진했다. 송도(松都) 전단원(檀園)에서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하던 중, 1338년 1월 크게 깨달았다고 전한진다.

백운암에 머물던 보우 스님은 47세이던 1346년 원나라로 건너가 이듬해 임제종의 18대 법손인 석옥 청공선사를 만나 인가를 받는다. 당시 석옥스님은 보우 스님에게 "불조의 명맥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당부와 함께 가사와 주장자를 전했다고 한다. 연경



태고 보우 스님

신라-고려 교체 이후 혼란 불교로 극복

대각 의천 '교장 수집·속장경 간행'

태고 보우 화두참구 수행법 제시

나옹 혜근 '염불문' 등 대중불교 전혜

에 머물 때는 황실의 칭송을 들으며 성대한 법회를 개설했다고 한다.

보우선사는 부처와 조사가 전한 진리는 문자나 언어에 있지 않다는 선교관을 가지고 한결같이 무자를 비롯한 화두 참구를 수행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 참구과정에서는 어떠한 지해(知解)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귀국한 스님은 수많은 남자들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끌었다. 1357년, 공민왕이 보위에 오르자 왕은 보우 스님을 왕사로 임명하고자 했으나 스님은 끝내 거절했다. 그러나 공민왕은 왕사의 법복과 인장을 스님 처소에 보내 주자 스님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왕사로서 원용부를 설치해 종단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 스님은 스스로 왕사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소शल산에 머물었고, 1371년 공민왕은 이러한 스님을 나라의 스승인 국사로 책봉했



나옹 혜근 선사

다. 스님은 한양 천도 등의 정치적 자문도 하였다.

보우 스님은 당시 구산선문의 경정이 심각해 폐단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일본으로 통합을 추진, 사원의 규칙도 <백장정규>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고려불교 부흥시킨 정토문 선지식

나옹 혜근 선사

나옹 선사는 고려 말 스님으로서 20세 때 친구의 죽음으로 문경 대승사 요연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양주 회암사에서 4년간 정진했는데 불과 24세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다.

충목왕 4년(1348) 원나라 유학길에 올라 인도인인 지공 스님이 있는 법원에서 3년 간 가르침을 받는다. 이후 항저우 휴휴암(休休庵), 정자선사(淨慈禪寺)에서 수행하며, 임제종의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서 법을 받았다. 그 뒤 다시 지공선사를 찾아가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이어받아 두 스승에게 심인을 전수받았다.

연경에서는 광제선사에서 개당법회를 열고 원 왕실의 환대를 받았다. 원나라 황제의 청으로 광제선사(廣濟禪師) 개당법회를 열었으며, 지공선사의 가르침을 안은채 10년 만에 고려로 돌아온다.

귀국한 후에는 공민왕과 태후의 청으로 궁궐에서 선법의 요체인 심요(心要)를 설하였다. 나옹선사는 이때부터 고려 불교를 부흥시키는 중심축이 되었다.



천태종이 매년 단양 구인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각 의천 스님 차례제



태고종이 매년 서울 태고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태고 보우 스님 차례제



남양수 회암사지에 남아있는 나옹혜근선사 부도탑과 석등

스님은 대선사였으나 민중을 위해 염불 법문을 권장한 선문과 정토문의 선지식이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서왕가(西往歌)>를 지었고, 또 <승원가(僧元歌)>를 지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염불법을 알기 쉽게 가르쳤다.

스님은 1371년, 가사와 법복을 하사받았으며 왕사에 봉해졌다. 공민왕에게 존승(尊崇)받아서 법호(法號) 보제존자(普濟尊者)를 받았다. 1379년 정월 지공 스님의 영골이 화엄사에 도착하자 영골에 예를 올리고 광명사에서 안거 하였다. 9월에는 양종오교(兩宗五敎)의 승려들을 시험하는 공부선(工夫選)을 관장하였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번잡하여 밀양 영일사로 가는 도중 여주의 신희사에서 세수 57세, 법랍 37세로 입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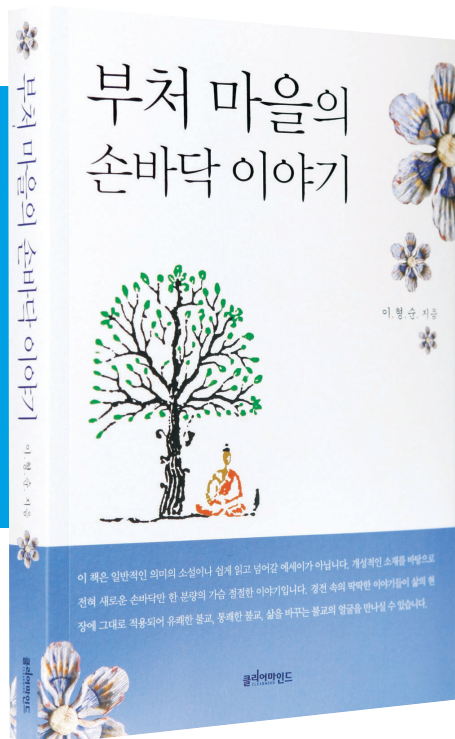
신희사 법상 위에 앉은 나옹선사가 일렀다. "너희들을 위하여 열반불사를 마치겠노라." 봉미산 봉우리엔 오색구름이 덮였고, 선사를 태우고 가던 말은 먹기를 그치고 슬피 울었다고 전한다. 우왕 2년(1376년) 5월 15일, 스님이 된 지 37년 만이었다.

나옹화상의 법맥은 무학대사가 이었고, 목은 이색은 위와 같은 일들을 비문에 적었다. 웅선사 비와 부도는 회암사터와 신희사에 있으며 원주 영전사에 세운 승탑(僧塔)인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原州 永傳寺地 普濟尊者塔)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다. <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간관계의 고민을 가진, 삶이 왜 이따위냐고 소리치고 싶은, 번뇌 만발의 사람들에게 빙긋이 웃음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까칠한 손바닥이야기!!

신간 부처 마을의 손바닥 이야기



말로는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힘들면 쉬웠던 말들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 살림이인지, 또 조복받기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법당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60년을 넘게 절에서만 일꾼 노릇을 했기에 공양물은 물론 절집 일에 관련한 달인이라고 불려도 좋았다. 심지어는 스님들의 얼굴만 보아도 공부가 된 스님인지 아닌, 머지않아 여신도와 스캔들이 날 스님인지 아닌지도 척 꿰고 있었다.

번뇌하는 인간들의 유쾌한 아이러니가 가득한 40가지 이야기!!

이형순 지음 | A5 신국판 349쪽 | 값 15,000원 | 클리어마인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는 736호 클리어마인드 문의 02)2198-515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